

책속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준이에게

안녕? 난 아라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선우라고 해

약 1년전 나에게 민고 싶지 않을 만큼 슬픈 일이 있었어.

나에게 나를 엄청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외삼촌 한분이

계시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치셔서 이제 휠체어나 목발이 없으면 걷는게 불편하셔. 외삼촌은 휠체어를 타시니, 턱이 있는

곳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계단으로는 올라가지도 못하셔.

난 그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별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외삼촌이 장애를 갖고 불편한 모습을 보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졌어.

우리 가족들은 생각을 조금 바꾸기로 했어. 가족들이 모두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더 많이 안다치셔서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었는데, 이제 웃음 소리도 들리고 힘든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나의 꿈도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어. 바로,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야. 아직은 장애와 사회복지사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외삼촌을 생각하며 이 분야에 대해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볼 생각이야.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에 불편을 겪고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분들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거야.

준이야!

우리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너도 친구들이 놀려서 많이 슬프겠지만, 너무 슬퍼하지마. 너희 아버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니가 창파해 하고 힘들어하면,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너희 아버는 얼마나 속상하고 좌채감이 들겠어?